지역 *메아리*

고창군, 독서동아리 지원 추진

고창군이 군민들의 다양한 독서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은 지역 내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시낭독, 독서토론 모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책 읽는 도시' 붐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 도서관은 동아리 모임공간을 마련해 주고, 책꾸러미를 대여해 책을 주제로 한 낭독, 토론, 함께읽기, 글쓰기, 독후 그리기 등의 안정적인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독서동아리 등록은 5명 이상이 한 달에 1차례 이상 모임을 갖거나 계획 중인 모임이 해당되며 모임 후에 활동일지를 작성하면 된다.

등록 방법은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고창군립도서관 및 성호도서관을 방문하거나 팩스(063-560-8060) 또는 이메일(sweetmeron@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문의사항은

고창군립도서관(063-560-805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전국에서 독서율이 가장 높은 도시를 목표로 도서관과 생활공간 곳곳에서 함께 모여 책을 읽고 토론하는 사회적 독서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 구철초 꽃축제 평가회 가져

정읍시가 축제 명소 구절초 테마공원을 탄탄한 사계절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최근 제2청사에서 '제14회 구절초 꽃축제 평가회'를 가졌다.올해 구절초 꽃축제는 지난 10월 5일부터 16일간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유진섭 시장과 축제 추진위원, 판매장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이들은 이번 해 구절초 꽃축제에 대한 종합평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올해 새로 선보인 아스타, 바늘꽃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아름다운 경관 인프라 구축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더불어, 정읍방문의 해를 맞이해 기획한 기념사진 제공 이벤트와 포토존 설치 등에도 호평이 이어졌다.

아쉬운 점으로는 코스모스 개화 시기가 축제 기간과 맞지 않은 점과 판매장 음식의 질 등이 꼽혔다.

축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대체경관 조성과 음식 위생, 서비스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종합적인 장기비전 구축과 축제 운영의 전문성을 위한 조직체계 정비도 발맞춰야한다는 입장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시민 인명구조 역량 '입증'

정읍시, 전북도 민방위 경진대회 최우수·우수상 수상

정읍시가 '2019년 전라북도 민방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읍시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부안군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2019년 전라북도 민방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는 응급처치 방법과 심폐소생술 기법을 다룬 경기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남녀 대표팀선수단 280여 명이 참여해 시·군간 치열한 경연을 펼쳤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여성지원민방위대가 1위인 최우수상을 차지하고 남성지원민방위대는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수상은 민방위 교육과 각종 재난대비 훈련 시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 실습 등 평소 안전교육 생활화로 실력을 쌓아온 결과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시 여성민방위대 대표선수는 대한민국 민방위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출전권을 획득하며 다시 한번 실력을 겨루게 된다. 시는 지진과 홍수, 폭설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붕괴 등 사회재난에 대비해 지원민방위대 응급처치 전도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청소년과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순회교육과 시민강좌 등을 통해 언제든 처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는 시민의 생명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일등 응급처치 행복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주고 재학생 전통 성년의식 거행

정읍 예명문화원서

관혼상례 중 첫 번째 의례

정읍예명문화원에서 최근 정주고 재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통 관례(성년례)가 거행됐다.

정읍예명문화원(대표 박형숙)에서 최근 정주고 재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통 관례(성년례)가 거행됐다.

이번 전통 성년례는 예비 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성년으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일깨우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성년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거치게 되는 관혼상제 가운데 첫 번째 통과의례다.

청소년이 성인이 됨을 축하하고 성인으로서 자격을 인정함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격적인 역할과 책무를 부여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날 성년례에서는 성년선언과 남학생에게 관(冠)을 씌워주고 여학생에게는 비녀를 꽂아주어 어른과 동일한 복식을 갖추는 의식 절차를 진행했다.

또, 덕담과 교훈을 전하고 학생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른의 도리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전통적인 방법으로 성년을 맞이할 수 있어 뜻깊고 인상 깊었다"며"성년례 행사를 통해 앞으로 성인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을 배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예비 성인으로서 책임감과 자신을 갖고 진정한 성인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저소득층 위한 스포츠체험강좌 운영

고창군이 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체력증진 및 스포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오는 12월 14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운영한다. 이용권(월 강좌)를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55명을 선정해 14일 하루 동안 진행되며, 배드민턴 강좌와 함께 배드민턴 용품, 식사 등이 제공된다. 이번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신청은 체육청소년사업소(560-8911)와 고창생물권 공공스포츠클럽(564-8502)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날 강좌에서는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홍보도 함께 진행되며, 유·청소년에게 월8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12월중 신청(http://svoucher.kspo.or.kr)을 받을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설숭어 축제 '팡파르'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부안상설시장 서문 주차장 개최 예정

부안 설숭어 축제 포스트

제10회 설숭어 축제가 오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부안상설시장 서문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설숭어 축제는 부안군의 겨울철 대표축제로, 2007년도에 첫 개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부안군민과 전통시장 상인들간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로 제10회째를 맞는 이번 설숭어 축제는 첫 날 개막식과 함께 JTV 전주방송 주관의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시작으로, 숭어잡기, 숭어 빨리먹기 이벤트, 숭어 특가판매 등의 축제의 심볼인 '부안군 설(雪)숭어'를 활용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행사 및 연계행사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될 계획이다.

설(雪)숭어는 '겨울 숭어 앉았다 나간 자리 뻘만 훔쳐 먹어도 달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육질이 연하고 담백한 생선으로 특히 겨울철 서해안 앞바다에서 주로 잡혀 명실공히 부안군의 겨울철 특산품으로서 관광객들의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제10회 설숭어 축제가 부안군 전통시장의 매력과 특화상품을 널리 알려 더 많이 관광객이 앞으로 부안군을 방문해 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군과 상인의 노력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혁신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3건 가결

장은아·김정기·이용님 의원

본회의 발의 조례안 가결

부안군의회는 지난 29일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각각의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은아 의원(부안·행안 지역구)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과 신변 안전보호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부안군 복지 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기 의원(상서·보안·줄포·진서 지역구)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로 인하여 북한 이탈주민이 부안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님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헌혈가능 인구 감소와 수혈인구 증가, 특정시기 헌혈자 감소 등에 따른 지자체 중심의 안정적인 혈액 수급의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향후 부안군의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의회의원 일동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연구하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자세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